



순창군, 2022년 상반기 주경야동프로그램 운영

순창군 보건의료원이 오는 5월부터 지역주민의 걷기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걷기환경 조성을 위해 '주경야동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상반기 주경야동프로그램 대상자모집은 29일까지 선착순 전화접수로 진행된다. 걷기 및 신체활동 증진을 희망하는 지역주민 50명을 대상으로 5월 10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순창군공설운동장에서 운영하며 노르딕스틱을 활용한 걷기운동 지도를 통해 올바른 걷기 자세를 교육한다. 그 외 파워로비, 스트레칭 등 다양한 운동 교육도 진행하며 네이바밴드를 활용한 걷기마선 제공으로 참여자들의 일상생활 속 걷기활동 증가를 도모할 방침이다.

군은 지역주민의 걷기실천율을 높이기 위한 걷기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왔다. 워크온 앱 활용 걷기챌린지, 주경야동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의 걷기활동 참여를 독려한 결과 걷기실천율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영곤 보건의료원장은 "지역주민의 걷기실천율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에도 주경야동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걷기 및 신체활동 교육을 통해 올바른 걷기 자세 습득 및 생활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주경야동프로그램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063-650-5231)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진안군, 드림스타트·아동학대 피해 어린이 여행 추진

진안군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및 학대 피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의미 있는 동행을 추진한다.

군은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이해 5~7일까지 2차 3일 일정으로 소외 어린이들과 함께 제주도로 졸업 여행을 갈 계획이다.

이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등이 여행을 통해 초등학 교를 졸업하기 전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고, 아동학대 피해 어린이의 정서적 치유와 미래의 활기찬 꿈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기 위해 준비했다.

이번 행사는 특히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추진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2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행사로 어린이들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졸업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대상 어린이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아동들의 자존감과 민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다.

김정열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어린이들은 우리군의 미래다"며 "소외받고, 감정적으로 상처 받은 어린이들이 이번 활동들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고, 희망을 꿈꾸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부안 주산면 성덕마을 신정휴씨, 면지 편찬 협찬

26일 부안 주산면 성덕마을 신정휴씨가 '주산면지' 편찬을 위해 추진위원회에 100만원을 쾌척했다. 신정휴씨는 현재 주산면에서 영농조합법인 리스프라이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백미를 기탁하는 등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

신정휴씨는 "이때까지 주산면의 역사를 담은 자료가 없었는데, 면지 편찬을 통해 주산면에 대해 좀 더 알아가고 면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좋은 면지가 편찬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종률 추진위원장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시는 만큼 면민이 공감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면지 편찬이 될 수 있도록 추진위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나눔축산운동 진행 활발'

전북농협,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축산 지원 행사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사)나눔축산운동본부, 전주김제안주축협(조합장 김창수)은 26일 김제시 용지면에 위치한 애린양로원을 방문해 '나눔축산 이웃사랑 노인 복지 후원 행사'를 실시했다.

의지할 곳이 없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독거노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이창완 전북농협 부본부장, 김창수 전주김제안주축협 조합장, 김태곤 농협김제시지부장 등이 참석해 나눔축산운동의 뜻을 함께 실천했다.



김창수 전주김제안주축협 조합장은 "앞으로도 나눔축산운동을 활발히 진행해, 어려운 이웃과 지역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축협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이리공고, 전국 육상 선수권대회서 활약

이리공고가 전국 최강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이리공고는 최근 대구에서 열린 제51회 전국 육상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 등 총 5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여고부 육상 원반던지기에서 뛰어난 실력을 선보이고 있는 임재연은 이 대회에서도 44m49를 기록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김태희는 해머던지기에서 48m98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남고부 경기 원반던지기과 창던지기에서 나선 최재노는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고, 안상준은 포환던지기에서 값진 3위를 했다.

이리공고 최진엽 육상 지도자는 "앞으로도 선수들이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경초장학재단, 전북대 우수 학생에 장학금 전달

"전북대 학생들이 국가 발전을 이끄는 우수 인재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재)경초장학재단(이사장 김택수)이 전북대 우수 인재들에게 '경초장학재단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전북대는 4월 26일 오후 5시 대학본부 4층 회의실에서 김택수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들과 전북대 김관우 발전지원재단 이사장 등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 장학금은 경초장학재단이 지난해 전북대 우수인재 양성에 써달라며 기부해 온 5천만 원의 장학기금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지난해 9명에 이어 올해도 김다인 학생(간호학과) 등 10명의 학생에게 각각 200만 원씩 모두 2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 김택수 경초장학재단 이사장은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장학금 지급을 통해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커나길 바라는 마음에 지속적으로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있다"며 "장학금을 받게 되는 학생들이 나중에 또 다른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인성과 실력을 두루 갖춘 우수 인재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김다인 학생은 "이 장학금에 담긴 의미를 늘 되새기고, 열심히 학업에 정진해 훗날 지금 받은 것을 돌려줄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초장학재단은故김재호 경초학원(호남제일고) 초대 이사장의 유지를 받들어 그의 호인 '경초'를 따 설립된 재단이다.

/정은성 기자



전북은행, 군산진포중 찾아가는 금융교육 실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지난 26일 디지털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군산진포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사교 금융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1사교 금융교육'이란 금융회사와 인근의 초·중·고교가 결연을 맺고 방문교육, 체험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학습의 일환으로 가상현실의 세계 메타버스의 세상을 그린 영화 '레디플레이어 원'을 시청하며 메타버스를 이해하고 나만의 아바타를 만들어보며 디지털 세계에 대한 학습을 도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김윤상 기자



내전북본부·순창보건의료원, 임대주택 입주인 협약

내전북지역본부(본부장 안창진)와 순창군보건의료원(정영관)은 26일 '순창군 LH임대주택 입주자 정신건강증진 및 치매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고위험군 조기 선별 및 적절한 치료서비스 연계·지원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환경조성 및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LH 전북본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입주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해소하고,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한일장신대 사격부, 전국대회 단체전 우승

한일장신대 사격부(체육부장 김연수·감독 지두호)는 최근 열린 전국사격대회에서 단체전 우승과 개인전 준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일장신대 사격부는 지난 4월 18~21일까지 대구국체사격장에서 개최된 제34회 대한연맹 전국대학생 사격대회에서 50m 권총 남자 대학부에 출전한 박용훈 서정봉, 경원빈, 김중선 선수가 1606점을 쏘 2위 청주대를 9점 차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또 서정봉 선수(운동처방제 활학과 2년)는 50m 권총 개인전에서 546점으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김연수 교수(운동처방제활학과)는 "한일장신대 사격부는 체육부의 지원과 학교 구성원들의 응원에 대회마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며 "다른 운동부와 함께 대학 스포츠 명문의 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일장신대 야구부, 대학야구 U-리그 4연승 순항

한일장신대 야구부(체육부장 김연수·감독 이선우)가 2022 KUSF 대학야구 U-리그에서 4연승을 거두며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4월 7일 개막한 이 대회에서 한일장신대는 용인예술과학대를 5대 0, 동강대를 5대 2, 호원대를 9대 2, 단국대를 8대 4로 이기고 현재 D조 1위를 달리고 있다. 오는 29일 송원대의 경기를 앞두고 있으며, 본선 진출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선우 감독은 "남은 경기도 최선을 다해 조 1위로 왕중왕전에 진출하겠다"며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학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남원시, 사망자 증가에 화장시설 운영 확대

남원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및 환경적 등으로 인해 사망자 증가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30일까지 화장장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화장 차수를 증가한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화장로 운영 차수를 기존 3회에서 4회로 증가 운영 하였으나, 코로나 사망자 등의 증가로 이날 중순부터는 화장로 가동률을 5회로 상향 했으며, 운영 마감시간도 오후 5시를 오후 10시까지 5시간 연장한다.

특히,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화장장을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4월 중순까지 개장유류 화장에야를 전면 금지하고, 일반 시신 위주로 전환해 운영 중이며, 화장장 미설치 인근 지자체 주민들에게도 한시적으로 개방하여 운영 중이다.

남원시,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남원시가 세금으로 고민하는 시민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가 시민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이 지방세와 국세 전반에 대해서 무료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남원시는 마을세무사 2명을 위촉해 활동 중에 있으며,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이은숙 세무사(죽항동, 636-0780)와 김정렬 세무사(항교동, 625-2200)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대리인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복잡한 절차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에게 지방세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 및 이의신청 청구 시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개인과 배우자를 포함해 소유재산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고액·상속 체납자는 제외된다.

/남원=김기두 기자